주인공이 산적왕을 잡고 어디선가 주모가 나옴

주모한테 감사인사 받음

주모랑 같이 마을에 주모 소유의 주막으로 감

마을이 랄이 나있음

주모한테 왜 이런지 물어보고 설명을 듣던 도중

관군이 처들어옴

주모가 저 새끼들이 원인 같다고 함

주막에 있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막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전투 중에 컷신 나오고 끌려감

관아 안에서 사또와 좌우에 있는 칼잡이랑 창잽이와 이방을 만난다.

사또와 그 일당들은 관아 안으로 들어간다

주인공은 자신의 앞에서 주민들이 랄 나는 걸 보게 된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졸들을 뿌리치고 남은 주민들을 대리고 우선 빠져나온다.

주모에게 있었던 일을 말한다.

마을 사람들과 관아를 습격할 계획을 짠다

사람들과 함께 관아로 가 전투를 시작한다

나오는 졸들을 하나씩 처치해 가며 주인공은 관아 내부로 향한다

관아 내부로 들어온 주인공은 사또와 그일당들과 만나게 된다.

주인공은 칼잽이와 창잡이와 더블데이트를 즐긴다.

더블데이트를 망친 주인공은 화가나서 사또와 맞다이를 깐다.

사또와 싸움을 마친 주인공은 도망치는 이방을 뒤로한체 주막으로 돌아간다